

#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 특성 및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nels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Partisanship of Political Parties and Talks of Panels in Public Affair Talk Programs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손화정,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방송통신정책전공

Hwasung Son(pp125@naver.com), Yeong-Ju Lee(roselee@seoultech.ac.kr)

### 요약

종합편성채널은 수년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갔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미디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의 특성과 함께 패널 발언과 정당 입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패널의 직군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중립적 직군으로 소개되었으나 이들의 정파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면 정당인의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패널 발언의 정파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패널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출연 패널의 정파성이 명확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일관된 기준으로 장르를 구분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규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종합편성채널 | 시사 대담 프로그램 | 출연 패널 | 정파성 |

### Abstract

The political influences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have grown with the help of the current affairs talk programs for years but also these channels have been criticized as politically biased medi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nels who had appeared for 6 months since July of 2017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els' talk and the posi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results show that jobs of the casting panels were introduced as neutral ones which are not related to politics. However, after reclassifying them in terms of their political careers, most panels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hey tend to support the positions of the ruling or opposition parties. The more the association with the political party, the stronger the panel's comments. The partisanship of the panels should be clearly presented in the broadcasting program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genres of current affair programs by consistent standards to ensure consistency of deliberation. Lastly self-regulation of program producers should be more strengthened.

■ keyword : |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 Public Affair Program | Partisanship | Panels |

## I. 서론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채널)은 2012년 국회의원 선

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를 거치면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채널로 급부상했다. 50~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올

라하면서 2018년 기준으로 MBN(1.376%) JTBC (1.291%), TV조선(1.191%)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다 [1].

그러나 종편 채널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빈번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의성과 불공정 문제로 제재를 받아[2],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되는 등 정파적 편향성 논란에 처해 있다 [3].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2012년 대선을 기점으로 쏟아져 나온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있다[4].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기준으로 MBN이 5개로 가장 많고, 채널A가 9개, TV조선 4개, JTBC 2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으며, 종편 채널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5].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 편성되며 특정한 관점이 강화된 정파적인 그리고 공격적이기도 한 주창적 저널리즘으로 차별화된다[6]. 출연 패널들은 시사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의견이 다른 패널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논거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쟁을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이슈가 성장 혹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파적 대립과 양극화는 불가피하지만[7] 정치적 입장이 양극화되는 것이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특정 대상에 대한 일방적 편향. 편견과 함께 사실 왜곡이 난무해지면 성숙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8].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은 출연 패널이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소개될 때 현재의 직함만 소개되고 정치적 프로필 혹은 경력이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특정 정권에서 청와대나 특정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 당시에도 당적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출연 패널이 복수의 채널에 고정출연하고, 모든 이슈에 대해 논평하고 전망한다. 아무리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수 고정 패널들의 제한된 식견으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정파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가치를 위배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이 부족하고 개연성 없는 막말과 자극적 발언이 많으며 진영 논리를 강조한다는 것이다[9]. 또한 방송사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입장을 시청자들에게 세뇌하거나[10], 이데올로기를 적극 차용하여 뉴스를 오락성 강한 쇼처럼 만들어 과도한 정파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출연 패널의 정치적 프로필을 분석하여 그들의 정파성을 세밀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토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파성을 나타내는지 그들이 대변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정당 입장과 패널들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파적 이해갈등이 큰 <북한 핵실험>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북> 사건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고자 한다.

## II. 관련 문헌 검토

### 1.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담(인터뷰)하는 포맷으로 진행되며, 비공식적이고 내밀한 담방 양식으로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다[9]. TV조선과 채널A는 전체 프로그램 중 65% 이상을 뉴스와 시사 대담 장르로 채우고 있다[11]. 재허가 심사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TV조선 30.05%, 채널A 30.1%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편성 비율이 매우 높다. 종편 채널에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이 높은 것은 다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정해볼 수 있다.

먼저 낮 시간대 주시청자인 노령층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이들이 종편 채널의 정파성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12] 종편 채널이 보수적 정치 시각을 선명하게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시청자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13]. JTBC가 다른 종편 채널들과 논조를 차별화한 것도 JTBC의 시청자가 진보 성향 시청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도[14] 같은 맥락

이다. 좁고 동질적인 그룹의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하 되, 보다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편향적인 콘텐츠로 공략할 때 시청자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은[15] 미국에서 새로운 뉴스 채널이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논리이다.

둘째, 방송사 입장에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동시에 시청률 확보에 용이하다[16]. 사건과 사안을 다루는데 방송량과 비중, 내용의 화제성 측면에서 압도적이며, 심층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17] 종편 채널은 선거를 거치면서 영향력을 키웠고 저예산 대비 안정적인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최근 등장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정치 예능 토크쇼도[18], 제작비용이 낮게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되어 편성되고 있다.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편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고 시청 빈도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5]. 보수 성향 시청자에게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고,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가져와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9].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주장이나 비전문 분야에 대한 평론, 그리고 지역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데 있다[20]. 미국에서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정파성에 대한 연구가 폭스 채널의 정파적 편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폭스 채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보도가 반복되면서 합리적인 투표자에게도 일시적인 학습 효과를 주거나 비이성적 유권자에게 장기적인 설득 효과를 주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1].

## 2. 시사 대담 프로그램 출연 패널이 갖는 정파성의 문제

### 1.1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의 특성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의 발언에 대한 사실 확인과 내부 데스크 과정을 대폭 생략한다. 대신 그들에게 발언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4]. 출연 패널은 과거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로써 정치권에

서 쌓았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평론을 한다. 또한 전직 정치부 기자와 연구소 출신 인사들이나 교수 등 학계 인사로 구성된다[10].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진보 혹은 보수라는 틀 속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례들을 토의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확산시키며, 감정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동반하는가 하면 격의 없는 대화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영주(2016)는 패널을 정치 매개 엘리트로 개념화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감정을 과감히 드러냄과 동시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성향의 집단과 영향력을 교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22]. 일부 패널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권위를 가진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정치권에 영입되기도 하며, 겹치기 출연을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질 낮은 평론을 반복하기도 했다[23].

### 2.2 출연 패널의 발화 특성과 정파적 저널리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인 방송 저널리즘이 취하던 이성적이고 객관화된 담화 양식이 해체되고, 새로운 담화 양식이 구성된다[24]. 사회자와 패널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사건과 감정을 격의 없는 대화 속에서 엄숙하지 않은 언어로 표현하고[9], 동시에 특정한 각자의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면서 정치적 담론지형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러한 양식은 발화자와 시청자들을 결속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며 저널리즘의 객관적 중립주의 원칙이 느슨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은 주제 선정에 맞게 다양한 토론 패널을 균형적으로 구성하고 일반 시청자도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과 거리가 멀다. 공론장의 절차적 합리성을 무시한 채 참여자를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진행되며, 출연 패널들은 충분한 정보와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논증하기보다 약식 논증과 비논리적인 발화 양태를 채택한다[25]. 이들은 논쟁을 촉발하고 판세를 분석하거나 누가 정치적 주도권을 쥐 것인지와 같은 선정적인 어젠더에 대해 논평하고[5], 거친 담화와 공격적이고 흥분된 담론을 생성한다[6]. 18대 대통령 선거 보도에서도 패널의 주관 이 개입된 발화행위가 상당 정도로 논증 과정을 구성하

고 있으며,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기술과 약식 논증이 전체의 65.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6].

한편, TV조선과 채널A는 보수적, JTBC는 진보적 논조를 띠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취재원보다는 앵커, 기자를 통해 매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정파성이 강한 저널리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14].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언론들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27].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 사이에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최대한으로 대표되고 반영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이다[12]. 대통령 선거 같은 정당 대 정당의 대결 구도에서는 TV 출연 패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의견을 노골적으로 피력하기도 한다[28].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언론의 정파성이 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김영빈, 한혜경 (2018)는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는 계층 분화적으로 정치 현실을 구성한다고 분석하고 있다[3]. 즉 여당과 야당의 의사결정과정을 경시하거나, 정치적 권리와 요구를 표현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행위들이 상호작용하는 민주적 정치의 이미지는 희박해지고, 부정적이며 갈등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2].

또한 지나친 정파적 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자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과 의견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성 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취재, 보도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정파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12]. 손석춘(2017)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다스리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진영 논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자신과 대립되는 정권이나 정파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을 하기 때문에 저널리즘이 수행해야 할 본질에서 거리

가 멀어진다는 것이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 출연 패널들의 직업과 출연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 패널들의 발언을 통해 정파성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특정 정당과의 관계성을 드러내지 않고 출연하는 비정치인 패널들이 정치적 패널들과 비교해 어떻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종합 편성 채널 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의 직군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종합 편성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의 발언은 어떠한 정파성을 지니고 있는가?

#### 2. 연구방법

먼저 2017년 하반기 (7월-12월) 동안 방송된 종편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20개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채널A가 9개로 가장 많고, MBN이 6개, TV조선이 4개, JTBC가 2개였다. 채널 A는 <뉴스특급>과 <신문이야기 돌직구쇼>가 편성횟수가 가장 많고, MBN은 <아침&매일경제>와 <뉴스&이슈>, 그리고 TV조선은 <뉴스퍼레이드>와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많이 편성되었다.

패널은 자사 기자를 제외하고 직업군을 9개 항목(정치인, 변호사, 교수, 언론인, 연구소 및 시민 단체, 평론가, 탈북인, 전현직 공무원, 기타)로 나눴다. 또한 출연자가 정파성(당적, 출마, 기타 정당과의 연관성)을 가진 경우 정치인으로 다시 한번 분류, 방송에서 노출된 이력과 비교했다.

표 1. 분석 프로그램의 편성 현황

채널	프로그램명	방송 시간	횟수
채널A	뉴스특급(뉴스)	월-금 13:20-14:50	123
	뉴스 TOP10(뉴스)	원-금 17:40-19:10	125
	뉴스스테이션(뉴스)	토 16:20-17:40	26
	뉴스뱅크(뉴스)	일 16:20-17:40	26
	신문이야기 돌직구쇼(교양)	월-금 09:20-10:50	126
	토요랭킹쇼(교양)	토 09:30-10:40	26
	안형환의 시사포커스(교양)	토 17:40-19:10	26
	신데이모닝쇼(교양)	일 09:20-10:40	25
MBN	일요매거진(교양)	일 17:40-19:10	26
	아침&매일경제(뉴스)	월-토 08:40-10:00	135
	뉴스 BIG5(뉴스)	월-금 15:30-16:50	118
	뉴스&이슈(뉴스)	월-금 16:50-18:10	121
	MBN뉴스와이드(뉴스)	월-일 10:00-11:20	112
TV조선	시사스페셜(뉴스)	토 18:10-19:30	50
	뉴스현장(뉴스)	토 13:50-15:10	54
	뉴스퍼레이드(뉴스)	월-금 07:30-08:50	123
JTBC	김광일의 신통방통(시사)	월-금 09:00-10:30	100
	이것이 정치다(시사)	월-금 17:30-19:00	12
JTBC	방송토론(시사)	금 00:30-02:50	12
	뉴스현장(뉴스)	월-금 14:30-15:50	124

다음으로 출연 패널의 발언이 지닌 정파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6차 핵실험(9월3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12월13일-15일)>을 선정하였고, 채널별로 프로그램 1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JTBC는 <뉴스현장>, MBN은 <아침&매일경제>, TV조선은 <뉴스퍼레이드>, 채널A는 <돌직구쇼>로 선정하였다.

표 2. 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	조작적 정의
직군	언론인, 변호사, 평론가, 연구소, 탈북인, 교수, 공무원, 정치인, 기타(자사 기자 제외)
정파성	당적, 출마, 기타 정당과의 연관성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북한의 첫 핵실험이어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이 중 여야 입장 차가 보이는 쟁점,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진단>, <레드라인 여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등 3가지를 선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

국 국민 방문> 역시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린 이슈였다. 주요 쟁점으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성과 총평>, <사드, 경제보복 봉합 여부>, <문재인 대통령 패싱, 중국 홀대> 이슈를 선정하였고, 비정치인 직군에 속하는 패널들이 정치인 군에 속하는 패널들과 어떠한 발언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북한 6차 핵실험>에는 총 14명,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 방문>에는 총 15명이 출연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반복출연했다. 특히 채널 A는 채널 중 3명이 동일한 인물로 구성되었다.

표 3. 분석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북한 6차 핵실험	문재인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JTBC 뉴스현장	A : 평론가(전 언론사 편집국장)	가: 정치인(전 민주당 국회의원)
	B : 교수(중도 보수)	나 : 정치인(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C : 연구소장 (북한전문가)	다 : 변호사(진보)
	D : 교수(핵공학전문가)	
MBN 아침&매일 경제	E : 교수(전 민주당 대통령 특보)	라 : 정치인(전 청와대 비서관, 진보)
	F : 정치평론가(중도 보수)	마 : 정치인(민주당 국민통합위)
	G : 연구소장(민주당 정책부위원장)	바 : 정치인(자유한국당 부대변인)
	H : 변호사(보수)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 뉴스 현장	I : 평론가 (보수)	사 : 정치인(자유한국당 부대변인)
	J : 연구소장(군사전문가)	아 : 연구소장(민주당 공천)
	K : 교수(외교전문가)	자 : 교수(진보)
		카 : 언론인(중도 보수)
채널A 돌직구쇼		하 : 변호사(보수)
	L : 교수(전 정당 대변인, 중도보수)	라 : 교수(전 정당 대변인, 중도보수)
	M : 교수(정당인, 보수)	마 : 교수(정당인, 보수)
	N : 교수(정당인, 진보)	나 : 교수(정당인, 진보)
		파 : 변호사(진보)

## IV. 연구결과

### 1. 시사보도 프로그램 출연 패널의 직군

채널A에 출연한 패널들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총 552회 출연한 변호사가 28%로 가장 많고 교수 21.7%, 언론인 17.5%, 연구소 관계자 9.9%, 평론가 6.8% 순이며, 탈북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났다. 패널의 정파성을 반영하여 분류하면 교수 직군의 출연 횟수가 404회에서 50회로 대폭 감소했고 변호사 그룹이 522회에서 409회, 연구소장이 181회에서 36회로 각각 크게 줄어들었다.

표 4. 채널 A의 출연 패널의 직군

직군	일반직군		정파성고려한 구분	
	출연 횟수	비중	출연횟수	비중
언론인	325	17.5%	325	17.5%
변호사	522	28.0%	409	22.0%
평론가	126	6.8%	126	6.8%
연구소	181	9.7%	36	1.9%
탈북인	79	4.2%	79	4.2%
교수	404	21.7%	50	2.7%
공무원	96	5.2%	96	5.2%
정치인	115	6.2%	727	39.1%
기타	13	0.7%	13	0.7%
합계	1,861	100%		

JTBC의 시사 토크는 <JTBC 밤샘토론> 한 개 프로그램만 있으며 격주로 진행되고 있다. 출연 횟수는 변호사 33%로 가장 많고, 정치인 26.8%, 평론가 17.9%, 교수가 14.9% 순이다. 정파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했을 때 교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정치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채널A와 공통적이다. 단, 전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당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5. JTBC의 출연패널의 직군

직군	일반직군		정파성고려	
	출연 횟수	비중	출연 횟수	비중
언론인	23	3.9%	23	3.9%
변호사	197	33.0%	195	32.7%
평론가	107	17.9%	107	17.9%
연구소	11	1.8%	3	0.5%
탈북인	0	0%	0	0%
교수	89	14.9%	37	6.2%
공무원	8	1.3%	8	1.3%
정치인	160	26.8%	222	37.2%
기타	2	0.3%	2	0.3%
합계	597	100%	597	100%

한편, TV조선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변호사가 31.7%로 가장 많고 교수 23.3%, 평론가 18.7% 순이다. 특히 TV조선은 전속 해설위원(평론가)을 두어 평론을 담당케 하고 있다. 정치적 연관성을 반영하여 살펴보면 변호사가 369회에서 285회로, 교수직이 265회에서 188회로 크게 감소한다.

표 6. TV조선의 출연패널의 직군

직군	일반직군		정파성고려한 구분	
	출연 횟수	비중	출연 횟수	비중
언론인	85	6.8%	85	6.8%
변호사	396	31.7%	285	22.8%
평론가	234	18.7%	234	18.7%
연구소	110	8.8%	78	6.2%
탈북인	12	1.0%	12	1.0%
교수	291	23.3%	188	15.0%
공무원	62	5.0%	62	5.0%
정치인	31	2.5%	277	22.1%
기타	30	2.4%	30	2.4%
			1,251	100.0%

마지막으로, MBN은 뉴스 프로그램만 편성하고 있는데, 변호사 25.9%, 정치인 20.9%, 교수 19.5%를 차지하고 있다. 패널의 정파성을 반영했을 때, 교수 직군의 출연 횟수가 438회에서 118회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파성을 가진 교수가 패널로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MBN의 출연 패널의 직군

직군	일반 직군		정파성 고려한 구분	
	출연 횟수	비중	출연 횟수	비중
언론인	343	15.3%	343	15.3%
변호사	581	25.9%	397	17.7%
평론가	128	5.7%	128	5.7%
연구소	165	7.4%	12	0.5%
탈북인	27	1.2%	27	1.2%
교수	438	19.5%	118	5.3%
공무원	14	0.6%	14	0.6%
정치인	469	20.9%	1,126	50.2%
기타	79	3.5%	79	3.5%
합계	2,244	100%	2,244	100%

표 8. 종편 패널 전체 직군별 비중

일반 직군 구분			정파성 고려한 구분		
직군	빈도	백분율	직군	빈도	백분율
변호사	1,669	28.0%	정치인	2,352	39.5%
교수	1,196	20.1%	변호사	1,286	21.6%
정치인	793	13.3%	언론인	776	13.0%
언론인	758	12.7%	평론가	595	10.0%
평론가	633	10.6%	교수	393	6.6%
연구소	475	8.0%	공무원	180	3.0%
공무원	193	3.2%	연구소	129	2.2%
탈북인	130	2.2%	기타	124	2.1%
기타	106	1.8%	탈북인	118	2.0%
합계	5,953	100%	합계	5,953	100%

이상, 중편 채널 전체적으로 출연 패널의 직군은 변호사가 28%로 가장 많고, 교수 20.1%, 정당(정치)인 13.3%, 언론인 12.7%, 평론가 10.6% 순이다. 정파성을 반영하여 재구분하면 정치인이 39.5%로 가장 많다. 대신 교수는 13.5%, 변호사는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직군이 자신의 정파성을 밝히지 않고 출연하는 주된 직군임을 알 수 있다[표 8].

2.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패널 발언 분석

2.1 북한 6차 핵실험

친여 성향의 A 평론가, E 교수, G 연구소장, N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부연하는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인 I 평론가와 L 교수는 우리 국민이 핵 불모가 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의 논리를 펼쳐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핵원자력 전문가인 C 연구소장과 D 교수, K 교수는 북한 핵무기의 가공할 위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실험 능력과 상황을 진단하는 입장에 머물렀으며 북한의 의도나 정치적 해석을 언급하지 않았다.

표 9.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진단

패널	관련 발언	입장
A	북한정권수립일에 맞춰 치른 이벤트, 대내외적으로 북한 김정 은체제의 안전성을 선전	여당
F	김정은의 마지막 카드, 우리가 북한에 지불해야할 (평화비용) 금액 더 커질 것	야당
I	우리국민이 핵 불모가 돼	야당
J	실제 정부발표는 축소된 것, 미국 뿐 아니라 서울에 쓸 수도 있어	야당
C	북한 핵을 한미동맹이나 중국 통한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서울에 핵이 떨어지는 시뮬레이션은 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립
G	6차핵실험은 예견됐던 상황, 중국이 나서야 함	여당
H	전쟁은 합리적 판단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핵을 우리에게 안 쓴다는 보장 없어	야당
B	북한 국가 차원의 결정이란 점 과시	중립
D	수소탄, 지난해 실험보다 10배 이상 위력, 결승선을 넘은 것, 핵을 사실상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함	중립
K	수소폭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 인정하고 대비해야	중립
E	한반도 아닌 미국을 상대로 한 것,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의 자립권 행사한 것	여당
L	김정은이 가장 무서운 핵무기를 손에 쥐었다	야당
M	수소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위력, 협상을 위한 카드	야당
N	실제 사용하기보다 핵보유국 선언의 의미	여당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야 모두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여당과 관련이 있는 패널들은 핵실험을 북한의 자위권으로 해석하거나 실사용보다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였다.

여야 패널이 모두 나온 MBN와 채널A는 여야의 입장이 모두 피력됐다. 보수 성향 패널이 출연하지 않은 JTBC는 핵실험 진단에 비중을 뒀고 예상됐던 실험, 불안감 조성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많았다. 반면 보수 성향의 패널만 출연한 TV조선은 핵 불모, 정부 발표에 대한 축소 의혹 등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표 9].

레드라인에 대해 패널들은 여야 정당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입장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패널은 진보로 분류되거나 정부 여당과 관련이 있는 패널들이었다. 보수로 분류되는 H 변호사를 비롯해 M 교수와 L 교수 등 야당 당적을 가진 출연자들은 모두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외에 보수로 분류되는 J 연구소장과 I 평론가의 경우 미국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 기준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야당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두드러졌다[표 10].

표 10. 레드라인 넘었나?

패널	관련 발언	입장
A	미국이 레드라인 넘은 것을 인정 안할 것	여당
F	ICBM에 핵을 탑재하는 것 현실화됨	야당
I	우리 기준으로 이미 예전에 넘었고 미국 기준으로도 넘은 것임	야당
G	기술적 부분이 아직 없었다 (넘지 않았다)	여당
J	우리 기준 레드라인은 2013년에 넘었다	야당
H	우리나라에 대한 레드라인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넘었고 미국과의 레드라인도 넘었다	야당
L	북한 주장으로는 넘어,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고민	야당
E	레드라인을 인정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빌미를 주는 것	여당
B	북한은 선을 넘어버렸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야당
M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다라	야당

다음으로 정부의 대화와 외교적 협상 정책을 찬성한 패널이 4명인데 반해 군사적 옵션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야당(보수)의 입장에 동조한 패널은 6명으로 더 많았다. 채널별로는 TV조선이 가장 보수 야당쪽 입장에 가까웠고, 대화 또는 여야 입장보다 국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인 JTBC와 차이를 보였다 [표 11].

표 11. 향후 대북정책

패널	관련 발언	입장
A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발언권을 가지고 트럼프행정부의 군사적 옵션을 억제하고 막아야 함, 추가규제는 실효성 없음	여당
F	북미대화 가능성은 더 높아져, 극단적인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야당
I	대북정책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미국이 북한과 빅딜에 나설 경우 우리 핵위협은 해결 못할 수도, 최악의 상황	야당
G	중국을 통해 레드라인 넘지않게 압박해야, 군사적 대응은 피해야	여당
C	당분간은 대화보다 위기상황 관리에 주력 예측, 대통령의 분노발언, 우리정부 기초 조정될 것	중립
J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 사용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	야당
H	핵에는 핵, 전술핵재배치, 정권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제재가 필요	야당
E	핵을 인정하고 제2의 개성공단 같은 정책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경제동맹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것	여당
B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 필요, 그러나 문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라고 접근하지 말고 미국과 이견 없음을 정부차원에서 보이는 게 중요	중립
K	외교적 방법 고려우선, 장기적으로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전술핵재배치 등 정책적 옵션 검토해야	중립
L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레드라인 넘어서었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	야당
M	미국중국 지렛대, 독자적 한반도 운전자론은 포기해야	야당
N	대화를 통한 해결, 한일러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 협력 이끌어내야	여당

이상, 여당과 관련된 교수 3명은 모든 항목에서 여당 입장과 일치했으며 야당과 관련된 패널 역시 모든 항목에서 야당(보수)의 입장과 같은 발언을 보였다.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핵공학과 외교 분야의 교수는 설명 위주의 발언으로 중립적 의견을 개진하였다. 반면 연구소 소속 대표는 보수 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입장을 보였다.

채널별로 살펴보면 JTBC는 진보, TV조선은 보수 성향 패널 수가 많았다. 군사, 외교, 핵 관련 전문가는 JTBC, TV조선에만 출연했다. JTBC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없었던 반면 TV조선은 핵무장론 등의 보수 야당의 주장이 주로 언급되었다. 진보와 보수 패널로 구성된 MBN과 채널A은 여야 양쪽의 입장이 모두 발언되었다.

## 2.2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전 국회의원 경력이 있는 정치인은 각 소속 정당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표시했다. 여당 정치경력이 있는 연구소장은 여당 입장을 옹호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야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발

언을 쏟아냈다[표 12].

표 12.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민방문 성과

패널	발언	입장
가	양국간 핫라인이 개설됐다는 것 중요한 성과, 지난 정부 외교 파탄 현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	여당
나	현 정부 들어 중국과 정상회담만 세 번, 새로운 게 없다, 저자 세외교	야당
H	얻은 것이 없는 방문, 국민 자존심 손상, 북핵문제 진전 없어	야당
아	한중간 신뢰 회복, 대통령의 북경대 연설 중국을 감동시켜, 4대원칙 합의도 한국편 들어준 것	여당
카	북핵문제 진전 없고, 기자폭행,중국측 홀대, 국민 자존심 상해, 경제관계 정상화 언질은 긍정적	야당
자	기자 폭행도 있지만 침소봉대, 경제 회복 공식 철회 이득	여당
L	사드, 북핵 문제 진전 없고 중국 푸대접으로 국민 감정만 상대	야당
M	중국방문 성사에만 매달린 결과 일어난 외교적 참사	야당

다음으로 사드와 관련된 경제보복 이슈와 관련하여 정치적 관련성이 많을수록 각 정파적 입장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직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연구소장은 사드로 인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여당 입장을, 반면 전직 야당 의원과 야당 정치 경력이 있는 L 교수와 M 교수는 경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 정부가 중국 정부에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표 13].

표 13. 사드 경제보복 통합 여부

패널	발언	입장
가	중국이 사드 직접 언급 안해, 언급 최소화, 일보 진전	여당
나	시진핑 비공개회담에서 또다시 사드 거론, 우리는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해 사과도 못 받아	야당
아	사드로 인해 닫힌 경제의 문 이번에 열린 것 가장 큰 성과	여당
카	총리 면담에서 경제관계 정상화 이야기 들은 것은 긍정적	여당
자	사드문제로 인한 경제보복 공식철회 된 것	여당
L	경제 문제 해결한다는 말 없어, 시진핑 주석이 사드문제 거론해 사실상 사드 해결 유무한 것	야당
M	문재인 당선자시절 사드 임정 중국이 잘 알아, 우리에게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 외교참사, 방중 이후 꼭 짚어야	야당

중국 방문 기간 중 대통령의 혼밥, 영접 중국 측 인사의 격, 의전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여당 쪽 패널들은 서민적 스किन쉽이라고 피력했고 방중 성과가 폄훼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야당쪽 패널은 중국이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으며, 외교적 성과가 크지 않다고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하였다[표 14].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민방문과 관련하여 정치적 관련성이 깊은 패널일수록 정파적 입장이 강해지



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치인 패널은 다른 정당을 비판하거나 소속 정당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였고, 당적을 가졌거나 선거 출마 등의 경험이 있는 패널도 정당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적이 없는 패널은 상대적으로 정파적 입장 표명의 강도가 약했다.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MBN이 각 정당의 입장이 고루 전달된 반면, 채널A는 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대담이 전개됐다.

표 14. 중국, 문재인대통령 출대 논란

패널	발언	입장
가	굴욕 외교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파탄난 양국관계 복원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여당
나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 방식, 너무 저자세 외교, 대미외교와 완전히 달라	야당
라	출대론은 중국의 품격문제, 별개로 방중 외교적 성과는 평가해야	여당
바	만찬장에서의 왕위태도는 결례, 사드 담당자가 영접, 대통령 혼밥	야당
사	국빈방문답지 않은 출대, 10번의 식사일정 중 2번의 공식일정임, 왕이부장이 대통령을 특 친 친 것도 결례	야당
마	중국 서민을 만나고 싶은 대통령의 의중, 중국 출대론으로 방중성과 폄훼하는 것 옳지 않아	여당
다	영부인간 만남에서 상당한 예우받아, 문화외교는 성공적	여당
h	식사자리 중 8기 혼밥, 마중 나온 사람은 도지사급	야당
파	국빈방문에서 대통령이 서민체험을 할 필요 없어, 중국 인사들과 조울 했어야 함	야당
아	중국 서민들과 함께하려는 대통령 의지임, 난징학살 추모식으로 시진핑주석이 자리 비운 것이지 출대가 아님	여당
카	방문 중 중국 관계자와의 식사가 너무 적어, 조율이 안됐으면 국빈방문 아닌 일반적 방문으로 바뀔여야 함	야당
자	일정 조율에 아쉬움은 있지만 방중성과를 의도적으로 꺾어내려는 것	여당
M	대통령 영접, 식사 조울 모두 중국의 의도임	야당
L	대통령에게 주석이 아닌 장관급이 팔을 친 것은 외교적 결례, 서민체험이라면 그걸 확대하고 영접하는 중국관계자가 나왔어야 함	야당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출범 이후 정파성을 활용하여 채널의 존재감과 시청률 상승을 견인한 중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파성을 나타내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야, 진보/보수에 따른 입장 차가 큰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민 방문> 이슈를 다른 프로그램을 채널별로 1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 출연 패널의 직군은 언

론인, 교수, 변호사 등의 비중이 크지만 정파성을 고려하여 패널을 재분류했을 때 교수, 변호사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정파성을 감추고 출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패널 발언을 내용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패널은 여당이나 야당 중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언론인, 변호사와 같은 중립적 직함을 가진 패널 역시 여야 한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정파적 입장이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출연 패널의 정파성이 명확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둘째,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일관된 기준으로 장르를 구분하여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율규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패널들이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들의 정치적 이력과 정파성이 은폐되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견해로 보여지는 건 문제가 크다. 특정 정당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진 패널의 경우 이들의 정파성을 제시해야 한다. 즉, 구체적인 프로필(전직, 현직, 정당가입 여부, 출마 여부, 정치단체 가입 여부 등)을 제시하거나 진보, 중립, 보수 중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명찰을 패용하게 하는 식으로 패널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발언을 통한 정치 행위를 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패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일종의 기만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직함만 방송 자막으로 표시하여 짧게 비추어지면 정당을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패널들의 발언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 입장과 관계 없는 중립적인 것으로 착각할 여지가 크다. 더 나아가 패널들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일종의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자체 내규에 따라 장르를 구분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채널A의 <시사포커스>가 교양으로 분류되고 JTBC의 <썰전>과 MBN <판도라>는 예능으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법상 뉴스 보도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교양과 시사 프로그램, 특히 예능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시사 장르로 모두 구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패널들이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제작진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겹치기 출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야별 전문가 패널을 확충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송사의 자체 심의 협의체에 방송 제작진, PD, 기자, 데스크 등이 참여해 패널 섭외의 기준을 만들고 정기적인 점검하는 장치를 둔다면 현재와 같은 비전문가의 무책임한 발언과 일부 패널의 겹치기 출연 등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패널들의 발언과 정파적인 표현이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종편 채널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제안을 담지 못한 점 역시 앞으로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 이 연구는 손화정(2018)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출연 패널 특성과 정파성 노출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송통신정책 석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참 고 문 헌**

[1] 닐슨 코리아,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자료*, 2018.  
 [2] 권장원,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 방송 규제 현황 및 방송사 역할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과 정치 공론장, 방송은 선거와 정치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세미나, pp.1-20, 2016.

[3] 김영빈, 한혜경,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의 정치현실 구성에 관한 연구 - TV 조선 <이것이 정치다>와 JTBC <정치부 회의>에 대한 계층적/기능적 분화형식 분석,” 언론과 사회, 제26권, 제3호, pp.60-116, 2018.  
 [4] 홍성일, “보수적 방송 채널의 제도화 혹은 페니 프레스의 텔레비전화,” 문화과학, 제78호, pp.90-102, 2014.  
 [5] 류동협, 홍성일,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부르디외의 저널리즘의 장 이론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겨울호, pp.9-36, 2013.  
 [6] 이기형, “중편 저널리즘의 위상과 함의 - 과잉된 정파적 저널리즘과 흥분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통권78호, pp.104-128, 2014.  
 [7] E. Carmines and J. Stimson, *Issue Evolution: Race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9.  
 [8] 김영옥,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한국 사회의 소통위기: 진단과 전망 세미나 발표문, pp.107-136, 2011.  
 [9] 박지영, 김예란, 손병우, “중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 <패도난마>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2권, 제2호, pp.5-63, 2014.  
 [10] 강찬호, “방송 정치평론의 문제점과 해법: 종편 시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가을호, pp.249-258, 2013.  
 [11] 김동준, “재승인 심사 앞둔 종편, 그 실태와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공청연론실현특별위원회, 2017.  
 [12] 이정훈, 이상기,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의 선정적 정파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 시사 토크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77호, pp.9-35, 2016.  
 [13] 윤홍근, “종합 편성 채널의 브랜드 정체성과 브랜드 체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161-171, 2014.  
 [14] 유수정, 이건호, “메인 뉴스 논조 차별화가 드러낸 한국 종편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제61권, 제1호, pp.7-35, 2017.  
 [15] 금희조, 조재호, “종합 편성 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시청의 주 효과 및 정치 성향과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제29권, 제3호, pp.5-35, 2015.

- [16] 하주용, “중편 정치토크 프로그램 흥수 이대로 좋은가,” 관훈저널, 제133권, pp.67-73, 2016.
- [17]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4, 12.3) (‘정윤희 보도, 지상파가 안보인다’)
- [18] 정은교, 김희조, “정보인가 오락인가 - 정치 예능 토크쇼의 정치적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5호, pp.362-390, 2014.
- [19] 안성희, *중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여론 형성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0] 이종혁, 정낙원, 김세은, “제20대 총선 관련 방송보도 분석과 평가 : 지상파와 중편 메인 뉴스 전수조사,”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6.
- [21] S. Della Vigna and E. Kaplan, “The Fox News Effect : Media Bias and Vot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2, No.3, pp.1187-1234, 2007.
- [22] 이영주, “종합편성채널 저널리즘의 비판적 재조명: 시사 토크쇼 정치 매개 엘리트들의 텔레비전 정치,”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77호, pp.36-72, 2016.
- [23] 정은주, “중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배틀,” 한겨레21, 통권 1051호, pp.20-27, 2015.
- [24] 송종현, “중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방송통신위원회주관 방송심의 현안 토론회 발표문, 2013.
- [25] 유경한, 심훈, 김경모,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선거 관련 대담 분석 :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발화행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겨울호, pp.93-128, 2018.
- [26] 원희영, 윤석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9권, 제1호, pp.117-148, 2015.
- [27] 최현주, “한국신문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3호, pp.399-426, 2010.
- [28] 김관규, “중편 저널리즘 진단: 제18대 대선 관련 시사 토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문화, 1월호, pp.39-42, 2013.
- [29] 손석춘, “보수·진보 프레임의 한계와 미디어 비평의 과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2권, pp.7-28, 2017.

저 자 소 개

손 화 정(Hwa-Jung Son)

정회원



- 1995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문학사)
- 2018년 7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방송통신정책(석사)

〈관심분야〉 : 공공방송, 방송정책, 뉴미디어 IT정책

이 영 주(Yeong-Ju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문학사)
- 1998년 2월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산업, 방송정책, IT정책